매일매일 20분씩… 책과 친해져요

'독서의 해' 광주·전남 책 읽는 문화 확산운동

미니책방·북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계획

'책 읽는 광주·전남'을 만들기 위한 첫 장이 열렸다.

책 읽는 문화를 확산, 광주·전남을 전국의 문화 중심지로 우뚝 세우기 위한 활동으로, 전남도와 22개 자치단체, 59개 공공도서관 등 126개 기관이 참여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보탠다. 독서가 전남 및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문화 인프라라는 취지에서다.

'독서의 해'인 올해 정부가 '하루에 20분씩 1년에 12권 책 읽기','지금은 책 읽는 시간' 등 온 국민 독서운동을 연중 펼치기로 한 것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우선, 전남도의 경우 '책 읽는 도민, 행복한 전남'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대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전남도립도서관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독서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자치단체, 59개 공공도서관, 19개 대학, 전남도교육청 등 25개 기관 등 126개 기관부터 솔선 수범하기로 했다.

당장, 전남도와 시·군은 민원실과 실·과에 미니 책방을 만들고 경찰청과 소방서는 지구대·파출소를 활용해 책방을 조성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과 해군 제 3함대도 대형 선박이나 군함을 활용해 직장 내 미니 도서관을 만들어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독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독서 생활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업무 시작 전 20분 독서하기 ▲사무실 내 독서 공간 마련 및 직원간 독서클럽 결성 ▲직원 간 책 돌려보기 ▲생일·결혼·승진 때 책 선물하기 ▲독서 토론회 개최 및 기관 홈페이지내 도서 감상문 코너 마련 등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민간의 호응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도 시도된다.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을회관·경로당·부녀회관 등 도내 곳곳의 공동체시설에 미니책방을 만들고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동도서관 운영 등 문화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면서 '아이와 함께 서점에 가 책 선물하기'나 '사랑의 책 나누기 운동', '전남 전 도민들이 참여하는 독서 왕 선발대회', '릴레이 독서'등의 캠페인을 벌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평소 책 읽기를 권장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191만명의 전남 도민 모두가 특정 책 한 권을 선정해 읽고 토론회나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등을 통해 전 도민이 소통하는 '한 권의 책'프로젝트도 구상중이다. 지난 1998년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했던 '시애틀 전 시민이 책 한 권을 같이 읽는다면'(If All Seattle Read the Same Book) 이라는 프로젝트에서 따왔다.

광주시도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내걸고 지역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벌인다.

시설이 열악하거나 오래된 광주지역 작은 도서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시낭송회나 음악회 등이 열리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계획도 시도한다.

순회 사서를 확보해 열악한 도서관의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지원에도 공을 들인다.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나 독서 문화 프로그램 보급 등 지원 정책을 진행하면서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3개월~ 24개월 미만 영유아 1440명을 북 스타트 운동 회원으로 모집해 그림책 등을 담은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함께 놀아요!스토리텔링', '그림책 놀이터', '오감발달 놀이', '그림책아 놀자!' 등의 프로그램을 계획중이다.

이외 빛고을 사랑의 도서관축제 개최, 순회 사서서비스 및 다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독서문화 확산 운동도 벌여 나갈 예정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학 진정성 담은 차별화된 문예지

'동산문학' 발간… 문학상 신설·신인작가 발굴 계획

새로운 계간 문예지 '동산문학'이 창간됐다. 기존 문예지들 상당수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고료를 주지 못하는 등 침체된 상황에서 '문인의 자존심'을 대변하는 문예지를 표방해 주목을 받고 있다.

동산문학(발행인 최봉석)은 3월 창간호에서 "현재 문학 위기는 삶과 인생, 사회 현실을 보다 깊고 넓게 조망해주는 작품을 창작해내지 못하는데 있다"면서 "'문학의 진정성'을 담보로 한 차별화된 종합 문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간호에는 '구조조의 비평'이라는 제목의 조수웅 전 전남문인협회 회장의 글과 문병란·송수권·허형만 시인 등 36편의 시를 비롯해 시조·아동문학·수필·평론 등을 실었다. 다시 읽고 싶은 소설로, 문순태씨의 '아버지의 홍매화'도 포함했다.

동산문학은 '문학판을 바꿔보자'는 구호로 '문인의 자존심'을 대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문예지가 출판사의 상업적 전략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 모든 원고에 고료를 지급하고 신인상을 공모, 수상자에게는 창작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문학지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원로 문인들을 위한 권위 있는 문학상 신설 계획도 내놓았다.

창간 멤버로 조수웅 전 전남문인협회 회장이 주간을 맡았고 다수의 시인, 수필가 등이 편집위원에 참여, 제작 방향을 조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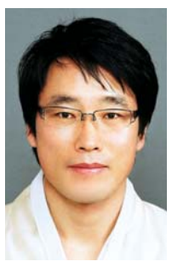
조수웅 주간은 "문학의 진정성을 담보로 기존 문예지들과의 차별화를 내세우는 한편, 참신한 신인 작가 발굴 등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3-0803.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통 굿판, 주인공은 타악기

이왕재 '외굿', 오늘 빛고을국악전수관

국악 공연에서 타악기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는 보기 드물다. 합주나 반주 형태의 공연이 많다보니 타악잽이들의 고민 중 하나는 홀로 무대에 섰을 때 어떤 것들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점이다.



타악연주자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 단원)씨가 갖고 있는 고민 역시 마찬가지다. 이씨는 15일(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열리는 독주회에서 그 숙제를 풀어나간다.

'외굿'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독주회에서는 별신굿 등 굿판에서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던 장단들을 홀로 연주한다.

'경기 비나리'를 시작으로 '경기도 당굿', 꽹과리 독주 '호남우도굿' 등이 뒤를 잇는다. 또 중요무형문화재인 '동해안 별신굿'을 들려준다.

전남대 경제학과를 거쳐 전남대 대학원 국악과를 졸업한 이씨는 무형문화재 제17호 우도농악 설장고 이수자, 국악실내악단 황토제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50-455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구미술관장에 김선희 씨

광주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등을 역임한 김선희(53·한국예술종합학교 조형학부 강사)씨가 대구미술관장에 내정됐다.

대구시는 미술관장 선발시험위원회에서 공개 모집에 응모한 7명을 상대로 서류·면접 시험을 거쳐 고득점자 2명을 선발, 통보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추천 순위가 가장 빠른 김씨를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전남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뒤 일본 모리미술관 선임 큐레이터, 조선대 외국어대학 동양학부 겸임교수, 전시기획자 등을 지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람냄새·아릿한 추억… 전라도 모습

전라도닷컴 기획전시, 21일부터 롯데갤러리

그림 속 전라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모습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또 전라도를 지켜왔던 사람들의 얼굴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롯데갤러리는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전라도 땅과 사람, 정신을 살펴보는 '그림 속 전라도'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롯데갤러리 창작 지원 공모 외부 기획부문 선정팀인 전라도 닷컴이 기획했다.

이번 전시는 '전라도 땅','전라도 사람','전라도 정신'등의 주제로 강연균·박문종·이구용·정희승씨 등 광주·전남·전북지역 작가 45명의 회화·판화 작품이 전시된다.

'전라도 땅'이라는 공간에는 전라도 땅의 생명력과 역사적 전통성, 환경의 소중함을 엿볼 수 있는 한희원씨의 '떠나가는 사람의 마을-섬진강 가는 마을 언덕', 신양호의 '무안 해제 가는 길', 류재웅의 '산수유 마을'등이 전시된다.

'전라도 사람'과 '전라도 정신'에서도 사람 냄새 나고 애잔하면서도 아릿한 추억을 되새기는 작품들을 비롯, 이 땅을 묵묵히 지켜온 지역민들과 시대 정신을 담은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둘러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문의 062-221-180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정희승 작 '봄날/상록회관 벚꽃'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떡국정식(기본3인이상)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보약, 홍삼은
북교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